

시편의 구조와 흐름

윤형 (장로회신학대학교 구약학 강사)

1. 들어가는말

시편을 어떻게 하면 잘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은 시편을 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생각하는 질문이다. 각 시편은 여러 방식(예를 들면 양식비평)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150편이나 되는 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해석학적 개념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말하자면 이것은 시편의 부분과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말한다. 실제로 나무만 보다가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시편 전체 150편은 무작위적으로 모아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편집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이것은 시편이 오경의 예를 따라 다섯 권으로 나누어진 것만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시편 본문의 내부구조를 관찰하면 거기서도 일정한 구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단락은 그 나름대로의 동기, 소재, 주제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른바 각 시편의 “삶의 자리”(Sitz im Leben)의 흔적을 보여준다. 여기서 그 각각의 주제를 묶어 통괄적인 해석학적 개념을 도출할 수 있을까 하는 흥미로운 질문이 생긴다. 이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면 시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으로서 해석학적 방향을 규정한다. 특히 1편에서 시편 기자는 토라를 의인의 즐거움의 원천으로 언급하면서 그 해석의 기준을 설정한다. 동시에 2편에서는 세상에 대한 야훼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해석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 서문은 마치 음악의 서곡(Overture)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결론부를 이루고 있는 146-150편(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무리함, 총 10번) 역시 창조와 토라에 기초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다. 이것은 음악의 피날레(Finale)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악장이 놓여 있는 이른바 “시편 교향곡(Psalmen Symphonie)”이다. 이렇게 볼 때 시편전체가 수미쌍관(Inclusio)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른바 “탄식-찬양”의 구조이다. 이런 서문과 결론 가운데 시편의 각 5권이 위치한다. 서문과 결론과 같이 이 중간 부분 또한 각 권별로 그 흐름을 정리할 수 있을까? 지나친 단순화 같지만 이를 통해 150편에 달하는 많은 양의 시편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개념을 갖게 된다.

2. 탄식 (1권, 3-41편)

시편 첫 권의 흐름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서문(1편과 2편)에서 장중한 표현으로 시작한 시편은 3편에 들어서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진다. 1인칭으로 등장하는 시편 기자는 갑작스런 탄식으로 시작한다: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3:1). 1권은 거의 대부분 다윗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¹ 이 표제에 대하여 여러 주장(다윗의 저작설 혹은 다윗의

1. 이 이외에도 다윗의 시편은 각권마다 배치되어 있다: 2권(51-72편), 3

편집설 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윗의 인생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한다(참고: 사무엘서). 또한 왕위에 올라서도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삶의 고난에 처하게 된다. 이런 곤경은 다윗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든다. 하지만 구체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어려움을 주는 “원수”라고 표현되는 대적의 모습도 일반적인 묘사로 그친다. 특히 3-7편에 걸쳐 시인이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 전형적인 모습으로 서술된다 (3장: 대적의 위협; 4장: 사회적 곤경; 5장: 법률적인 곤경; 6장: 병환; 7장: 대적의 위협). 여기서 기도하는 시편 기자는 한편으로는 쫓기면서 위협에 처한 왕의 모습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 혹은 의로운 자로서 공의의 하나님 야훼에게 구원을 호소하고 있다. 탄식 기도의 대상이 야훼로 나타남으로써 이것은 시인이 야훼 하나님이 수여한 토라에 근거한 삶을 사는 의인임을(1편) 말해 준다. 하지만 그는 외적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에게 위협을 당하여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이는 1편에서 말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하나님을 신앙하지만 현실의 삶은 그다지 즐거운 것이 아니다. 이런 괴리 현상에 대하여 시인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탄식이 중심을 이루는 이 단락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창조 의 영광에 대한 시편들이다(8, 19, 24, 33편). 네 편의 창조 관련 시편이 시인의 탄식 기도를 적절히 지탱하면서 연결시키고 있다. 대적

권(101-103편), 4권(108-110편), 5권(138-145편). 총 73편의 시가 다윗에게 돌려진다(칠십인역에서는 83편). 이것들을 합치지 않고 각 권마다 흠어 놓은 점이 특이하다.

에게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세상에 대한 주권자, 즉 만물의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있다. 이 대적 및 원수의 정체는 2편에 암시되어 있는데, 즉 세상의 군왕들 및 야훼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이다. 이들의 핵심 목표는 시인과 야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일이다. 말하자면 시인의 믿음을 붕괴시키는 일이다. 그런데 시인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대적은 눈에 보이는 실재이고 야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다. 시인의 실존을 위협하는 존재는 그야말로 현실적인 위협이다. 이에 반해 야훼는 대적의 말대로 그 존재성이 의심스럽다. 바로 이 점이 탄식을 자아낸다: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1권에 나타난 시인의 탄식 기도는 상당 부분 야훼를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1권은 시인의 불안한 내면을 깊은 탄식을 통해 반영하고 있다.

3. 탄식과 회의 (2권, 42-72편)

다섯 권 중에서 2권과 3권은 흥미롭게도 다음과 같이 교차대구 (Chiasmus)를 이룬다.² 이 또한 편집된 두 단락에 대한 해석학적 틀이 있음을 암시한다:

A 고라시편 42-49

B 아삽시편 50

C 다윗시편 51-72

B' 아삽시편 73-83

A' 고라시편 84-89

2. E.Zenger u.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6판, (Stuttgart: Kohlhammer, 2006), 354.

고라 시편	아삽 시편	다윗 시편	아삽 시편	고라 시편
-------	-------	-------	-------	-------

다윗시편을 중심으로 고라 시편과 아삽 시편이 안팎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다. 고라와 아삽은 모두 다윗과 관계가 있는 인물들이다(대상 9:19; 25:1,6; 26,1; 대하 20:19; 29:30). 그런데 두 시편은 서로 다른 신학적 방향성을 갖고 있다. 12개의 고라 시편에는 시온 신학적 성향이 깊게 깔려 있으며, 이에 반해 12개의 아삽 시편에서는 역사신학적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³ 22개의 다윗 시편은 1권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인생역정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구조를 통해 2권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2권의 처음은 1권의 첫 부분처럼 탄식의 기도로 시작한다. 하지만 그 음성은 1권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시인에게 묻는다. 그에 대해 시인은 명쾌하게 대답을 주지 못한다. 자신은 만군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지만 그것을 질문자에게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탄식한다. 그는 다시 숨어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깊은 상심에 빠진다(44:23f.). 45편부터 48편까지 시인은 시온 신학적 관점에서 야훼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 45편은 평화롭게 보이는 시온에서 거행된 왕의 결혼식 장면을 진술한다. 그리고 46-48편에서는 시온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진다. 이어 49편에서는 전도서와 같은 아주 회의적인 감정을 표현한 시가 나온다. 50편의 아삽 시편에서는 이스라엘이 드렸던 과거의 제의를 회상하는데, 그것이 허례허식적인 것이었음을 말한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으로 표현된다. 이 백성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3. E. Zenger u. 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353.

보인다. 51편부터 2권 마지막까지 다윗 시편이 계속된다. 여기서 다윗은 1권과 다르게 더 깊은 탄식에 잠긴다. 심지어 두려움과 떨림이 밀려오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고 탄식한다(55:5).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한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야훼에 대한 신앙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다가 69편에 들어와 시인은 깊은 물속에 빠진 자신을 목격한다.⁴ 여기서도 시인은 숨어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깊은 근심에 빠진다. 마지막 72편에서는 시온 신학과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하여(시 45, 58편) 왕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지혜로운 판단력을 하나님께서 줄 것을 기도하면서 2권이 마무리된다.

4. 탄식과 절망 (3권, 73-89편)

2권과 연결된 3권은 이제 2권과는 반대로 아삽 시편으로 시작해서 고라 시편으로 끝난다. 시인은 3권의 첫 부분에서 거의 넘어질 뻔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다. 이는 악인이 승하고 의인이 곤경에 처하는 현실에 대한 반응이다(73편). 이어지는 아삽 시편에서는 2권과는 다르게 전반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그 백성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본다. 2권에서는 그래도 시온 성소의 견고함에 대한 자랑과 믿음이 있었으나, 3권에 들어와서 그 상황이 반전되어 성소가 더럽혀진 현실에 분개한다(74편). 어찌 된 일인가? 2권과 3권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77-78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죄와 심판과 은혜를 설명한다. 여기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다윗

4. H. Ringgren, 김정준 역, 『시편의 종교』,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7), 108, 176f. 시편에서는 물 모티브가 많이 나오는데, 물들은 죽음의 영역을 상징한다. 바벨론의 시와 구약성서 시편 사이에도 이런 유사한 모티브가 발견된다.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는지가 강조된다. 79편에서는 전쟁의 참화를 심각하게 겪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나타난다. 이 역시 2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다. 80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주의 포도나무를 돌아볼 것을 부르짖는다. 이어 81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저지른 패역한 행동을 언급한다. 82편에서 불공평한 재판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꾸짖음이 나타난다. 마지막 아삽 시편(83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도울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이처럼 3권의 아삽 시편은 2권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여준다.

84편부터 89편 3권 마지막까지 고라 시편이 계속된다. 여기서 시인은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 번 간구한다. 여기서도 2권의 고라 시편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85편에서는 이미 시온이 멸망당한 상태였으며 백성들은 포로의 처지에 있다가 귀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말한다. 이것은 3권에서 보았던 자부심에 찬 시온 신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한 시온 성소가 열방의 발에 짓밟혔던 것이다(79,1). 그럼에도 불구하고 87편에서 시온이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희망이 표현되고 있다. 88편에서 시인은 숨어계신 하나님 앞에 처해 있음을 고백한다. 89편에서 시온 신학의 당사자인 다윗에 대한 언약이 서술된다. 그러나 그 언약은 시내산 언약에 기초한 율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을 말한다(89,30-32). 시인은 자신이 처한 절망가운데서 여호와가 기억해주기를 소원한다. 2권과 3권은 시온신학과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인물인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5. 소망과 감사 (4권, 90-106편)

시편의 후반부인 4권과 5권은 1,2,3권과는 다른 양식을 보여준다. 우선 90편 이후 나오는 표제부는 시 3-89편과 비교할 때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 나타난다. 90편 이후부터 표제부가 없는 시편이 많다. 그 표제부에는 멜로디 표시도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3-89편에서 자주 나타나는 “음악 인도자”라는 표지도 90편 이후에는 단지 세 번만 나올 뿐이다(시 109, 139, 140). “셀라”라는 표현도 3-89편에서는 자주 나타나지만, 90편 이후에는 몇 번만 사용될 뿐이다. 또한 2권과 3권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아삽과 고라 시편도 90편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3-89편과 비교할 때 90편 이후에는 탄식 및 간구시가 훨씬 드물게 나타나며 그 대신에 찬양 시편이 강하게 부각된다.⁵ 이런 외관상의 형식의 차이가 단락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 우선 1,2,3권과 비교할 때 분위기의 반전이 두드러진다. 1,2,3권에 드리웠던 어둡던 분위기가 4,5권에서는 밝은 분위기로 변화된다. 이것은 시인의 기도의 무게 중심이 탄식에서 찬양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지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우선 4권의 구조를 살펴보자. 다른 권과 비교할 때 양적으로 그 분량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총 17편). 4권의 구조는 아래와 같이 모세 편집 시편과 다윗 편집 시편이 “야훼 통치” 시편을 둘러싸고 있는 형식이다.⁶ 마치 왕이신 야훼를 중심으로 배치된 좌청룡 우백호 같은 모습이다:

5 D. J. Estes, 강성열 역, 『지혜서와 시편개론』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7), 203.

6 E. Zenger u. 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356.

A 모세 편집 시편 90-92편

B 야훼 통치 시편 93-100편

A 다윗 편집 시편 101-106편⁷

모세	야훼	다윗
----	----	----

4권은 5권의 화려한 마지막 찬양 시편으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통로의 역할을 한다. 마치 교향곡의 5악장 중 4악장의 중간 휴지기와도 같은 분위기다. 이제 시인의 기도는 자신의 곤경을 강조하기보다는 야훼의 권능과 통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즉 땅에서의 탄식과 회의와 절망에 묶여 있기보다는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구한다. 92편에서는 시편 1편과 같은 토라 시편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게다가 93편부터 100편의 시인의 기도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다. 거기서는 시인의 탄식은 보이지 않고 오직 야훼의 통치(יהוה מלך)가 강하게 강조되면서 그에 대한 경탄과 감사 기도가 나오고 있다. 위협으로 느껴졌던 큰 물결도 야훼의 능력에 비교하면 별것이 아니라고 말한다(93편). 또한 야훼의 통치 범위가 이스라엘 중심에서 만방으로 확대된다(96,98,100편). 인생역정에 중심을 둔 다윗 시편 또한 여기서는 탄식보다는 이제는 야훼를 송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103편). 4권 후반부에서는 토라에 근거한 시인의 기도가 많이 나온다(104-105편). 이렇게 볼 때 4권은 5권의 찬양의 피날레로 넘어가기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단락이다.

7. 102편, 104편, 105편, 106편의 표제부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인접한 다윗 시편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구조 파악을 위해 편의상 그렇게 명명하였다. 앞부분의 모세 시편으로 분류된 91편과 92편도 그런 원칙으로 구분하였다.

6. 감사와 찬양 (5권, 107-150편)

시편의 마지막 5권은 다양한 시편들로 구성되어 있다(감사 시편, 다윗 시편, 토라 시편, 순례자 시편, 할렐루야 시편 등). 여기서도 감사 시편과 다윗 시편을 바깥 틀로 가진 다음과 같은 구조를⁸ 발견할 수 있다:

A 감사 시편 107편

B 다윗 시편 108-110편

알파벳 지혜 시편 111-112편

유월절 할렐루야 시편 113-118편

알파벳 토라 시편 119편

순례자 시편 120-134편

역사 시편 135-137편

A 다윗 시편 138-145편

B 감사 시편 145편

마지막 5권은 어떤 흐름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시편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것을 파악해야 시편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해석학적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오권의 처음에 나오는 기도 양식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107편). 마치 트럼펫으로 연주하는 팡파레 같다. 이것은 오권의 해석학적 방향을 확실하게 결정한다. 힘든 인생 역정에서 탄식하는 다윗 시편도 찬양에 무게 중심이 실려있다(108-110편). 이어서 지혜서에서 발견되는 야훼 경외 신앙이 히브리 알파벳시를 통해서 나타난다(111-112편).

8. E. Zenger u. 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356.

이어서 유월절 시편(113-118편)⁹이 나온다. 여기서는 1,2,3권에 나왔던 숨어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안한 모습과는 달리, 확신에 찬 발언으로 야훼의 존재를 이스라엘이 과거에 겪은 경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시편의 서문에서 강조했던 시인의 삶의 근거가 된 토라에 대한 찬양이 119편에 나온다. 여기서 토라는 하나님의 능력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난다. 시인이 드리는 감사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말씀 자체가 감사와 찬양의 근거이다. 이어지는 순례자 시편에서는 파괴되었다가 다시 건설된 시온 성소를 보는 듯하다. 이는 2권과 3권에 나왔던 고라 시편에서의 시온 성소에 대한 찬양을 연상케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135-137편은 역사 시편으로서, 거기서는 3권의 아삽 시편과 유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138-145편은 마지막 다섯 번째 다윗 시편으로서 시인은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 이전의 탄식적인 다윗 시편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감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면서 145편의 감사 시편은 146편-150편의 마지막 피날레 찬양시편들을 예비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 146편에서 시편의 분위기는 급상승한다. 모든 관현악 악기가 총동원된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부정적인 표현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직 야훼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한다.

7. 포물선 구조: U

우리는 지금까지 시편의 내부구조 분석을 통해 시편 각 권의 흐름

9. 「독일성서공회해설 성경전서」(서울: 대한성서공회, 1997), 968. 유대전통에서 113-118편은 여러 큰 명절의 예배 의식문에 속하는데, 유월절에는 유월절 식사에 앞서 113편과 114편을, 식사 다음에는 115-118편을 낭송했다(막 14:26참조).

을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해서 시편 전체의 흐름을 끌어낼 수 있을까? 우선 시편의 서문은 장중하게 시작한다. 이어지는 1권의 다윗 시편은 탄식이 중심을 이룬다. 그리고 2권에서는 탄식과 더불어 시인을 둘러싼 주변환경으로 말미암은 회의적 분위기가 맴돈다. 3권에서는 탄식과 함께 시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절망적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처럼 시편의 전반부는 포물선 구조에서 볼 때 왼쪽의 하강국면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반해 4권에서는 분위기가 반전되어 감사로 시작하면서 미래의 소망에 대한 낙관적인 흐름을 보인다. 마지막 5권에서는 분위기는 더욱 고양되어 찬양의 피날레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때 시편의 후반부는 포물선의 오른쪽, 즉 상승국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1권부터 5권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시편에서도 이런 작은 포물선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탄식-회의-좌절-소망-감사-찬양).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로 이동할 수 없다. 그 가운데 거쳐야 할 과정이 반드시 수반된다. 그 과정은 하강국면으로 갔다가 상승국면으로 이동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것은 방대한 시편을 너무 단순화시킨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전체를 이렇게 포물선 구조의 흐름을 통해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